



무등산 눈꽃 산행 휴일인 11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2도를 보이는 등 강추위 속에서도 무등산에는 설경(雪景)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주말과 휴일에 2만5천여명의 시민이 무등산을 다녀갔다. /위작명기자 jwi@kwangju.co.kr

초등 교과서 삽화 성차별 요소 많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남성 위주로 그려지는 등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교대 권치순 교수와 서울 은천초등학교 김경희 교사가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학회지 창간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초등학교 3~6학년 10과목 교과서의 삽화에 등장하는 남녀비율은 평균 1.33대 1로 집계됐다.

어린이는 남녀비율이 1.16대 1로 다소 균형을 이뤘으나 성인은 1.85대 1로 남성편 중 현상이 심각했다.

역사적인 인물도 남성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등 40여명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유관순 열사밖에 없었다.

연남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41분 달돋이 19시 04분 달질 08시 28분

폭설

한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눈이 오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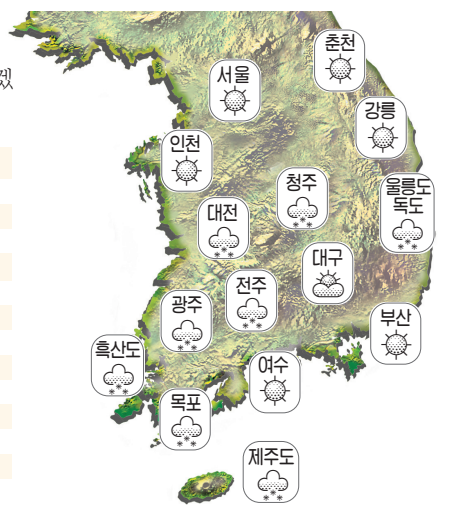


Table with tide information for the sea, including directions and times.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icons.

빙판길 '쿵' '쿵'... 곳곳 낙상·교통사고

광주·전남 대설 주의보... 오늘 최고 20cm 더 내릴듯

12일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으로 빙판길 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88·동구 소태동)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팔목 부상을 당했다.

◇교통사고도 이어져=눈이 내린 뒤 주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나주시 동강면 대전리 몽탄대 교 인근 도로에서 오모(여·55)씨가

물린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냇가로 빠져 운전자 오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영광군 대마면 송촌 삼거리에서 배모(여·42·영광군 불갑면)씨의 승용차가 눈으로 추락하면서 불이나 운전자 배씨가 다쳤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에 빙판길이 많아 낙상사고 위험이 크다"며 "특히 노인들은 외출 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지팡이를 짚는 게 좋다"고 주의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순사건 민간인 439명 희생

진실화해위 공식 확인...실제론 2천명 이상 추정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해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00여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실이 반세기만에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8일 '순천지역 여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순천지역에서 해방이후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439명이 국군과 경찰의 총칼에 무참히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보안기록조사회보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정부기록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사건이 생존자, 목격자 등을 비롯해 진압에 동원된 당시 국군 제2연대 등 정부군 장교 및 사병, 경찰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여순사건은 육군본부에서 여수 제14연대에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자 1948년 10월 19일 이에 반대하는 소속 군인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등부취재본부=지광헌기자 light64@

진실화해위는 순천지역 희생자는 439명으로 확인됐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건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2천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과 관련한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 아래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초·중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평가가 전국에서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4학년생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가 오는 3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동부교육장 공모

시교육청 14일까지, 자천타천 7명 물망

광주시교육청이 동부교육청을 2년간 이괄 교육장을 공모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다음달 말 임기 2년이 끝나는 이종현 동부교육장 후임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장 공모제는 안순일 현 교육감의 개방형 인사제도 정착 의지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에 이어 세번째다.

임용 자격은 중등교원으로 교장 경력 1년 이상, 교육 전문직 경력과 2년

자천타천 7명 물망

또 교육개혁에 대한 신념과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과 조직관리 능력 등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선발 방식은 교육계 원로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10명 안팎의 심사위원회에서 서류(20점), 발표(40점) 및 면접(40점) 등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고, 교육감이 최종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청하게 된다.

시교육청 인사내규에 따라 교육장

임기는 2년이며, 임기가 끝나는 현 동부교육장은 연수원 등으로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번 공모까지 정년 잔여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하,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교육행정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2년으로 강화했다.

교육장 후보로는 분청에 현 최병량 교육국장을 비롯한 장복일 장학진흥과장, 박병철 과학기술정보보호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선 전남여고 박종재, 전남공고 김용희, 전남고 정병서, 광주전자공고 김성영 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교육계 안팎에선 최병량 국장과 장복일 과장, 박종재 과장 등 3명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올해도 초·중·고 일제 학력평가

학부모 등 반발 클 듯

올해에도 초·중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평가가 전국에서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4학년생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가 오는 3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는 지금까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학력평가에 반대해온 만큼 올

해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평가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의 실력을 측정하게 된다.

지난 해 초에는 중1 신입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연합해 평가를 하고, 옛 해 초등학교 4~6년생과 중 2~3학년생을 대상으로 교과부가 별도의 평가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교과부가 중1 신입생까지 통합해 평가를 주관한다. /채희중기자 lucky@

통합 교육 지원센터 광주교대에 문 연다

광주교육대학교에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진단, 검사, 치료하는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교육대는 "12일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언어치료실, 교육지원실 등을 갖춘 통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악, 미술, 운동치료실 등을 비롯한 상담실, 교육진단실 등을 갖췄으며 시설에 1억 2천만원이 투입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oonam Hanseung Academy (호남한성학원) featuring a school building, a swimming pool, and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